

# 구마노 신앙의 여인 구제에 관한 고찰

오가와 미치요 (간사이대학)

## 1.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구마노 신앙이 여인 구제를 설파한 것에 주목한다. 구마노 신앙은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신앙을 모은 성지로 알려져 있다. 여성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도(唱導)역시 활발하여, 월경이나 출산 시의 출혈로 인한 부정함을 기피하지 않고 여성의 구제에 힘썼다. 구마노 신앙이 여성을 수용한 배경으로 슈겐샤(修驗者)의 존재를 지적한다. 슈겐샤가 여성의 출산에 종사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산악 수행의 성지였던 구마노가 여인 구제를 설파하게 된 경위를 고찰한다.

## 2. 구마노 신앙과 여성 특유의 부정

구마노 신앙은 남성과 함께 여성의 구호를 주장한 성지이다. 『후가와카슈(風雅和歌集)(1346~1359)』에서 여성과 피의 부정함에 관련된 전승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속세간의 사람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신인데 월경이 어찌 지장이 있겠는가?” 이것은,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가 구마노에 참배하러 갔을 때 월경에 의해 신전에 공물을 올리지 못하자 ‘아직 깨끗하지 못한 이 몸에 구름이 드리워져 월경을 맞이한 것이 슬프다’라고 읊으며 참자리에 들자 신이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이다”

헤이안 중기의 여류 시인인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 (생몰년 미상)은 구마노 참배 길에 월경이 시작되었다. 생리 중인 여성은 피의 부정함에 의해 기피되기 때문에 신사 참배는 피해야 했기 때문에, 이즈미 시키부는 구마노에 참배할 수 없는 괴로움을 시로 읊었다. 그러자 구마노 신이 나타나 “부처·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본지(本地)의 모습을 감추고 인간 세상으로 모습을 나타낸 신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이라도 기피하지 않는다”라는 답가(返歌)를 얻는다. 구마노가 월경 중인 여성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 반면, 다른 절과 신사에서는 피가 부정하다 하여 기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타이진구기시키후(皇大神宮儀式帳)』(804)는 피를 아세(阿世)라고 바꾸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월경 기피에 대해서 『혼초세이키(本朝世紀)』(1150~1159)는 866년에 사이구(齋宮)의 월경으로 가즈노강에서 행하는 정화 행사(禊)가 연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구마노 신앙은 『구마노의 본지(本地)』라는 이야기를 통해 출산을 조건으로 한 여인의 구제를 설파했다. 이 책은 남아 전해진 책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두 계통으로 분류된다. (마쓰모토 류신의 「구마노의 본지」 서론, 민중 종교사 총서 21, 『구마노 신앙』 미야케 히토시 편에 수록 1990년, 유잔카쿠 출판 주식회사) 주인공인 왕자와 아버지인 왕, 그리고 고승이 구마노에 수적(垂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계통과 왕자의 어머니인 고스이덴노요고(五衰殿女御)가 소생한 후에 구마노에 수적(垂迹)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계통이다. 고스이덴노요고가 구마노에 수적(垂迹)하기까지를 담은

이야기 계통에서는 고스이텐노요고의 인생에서 출산, 유랑, 죽음뿐만 아니라 소생과 수적(垂迹)이 더해져 있다. 여성의 소생을 전제로 이야기되지만, 그것은 그녀가 출산 한 아들에게 공양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생했다. 여성과 출산과 관련된 인과 관계는 여성이 종교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마노 신앙은 부정함을 지녔다고 여겨진 여성을 기피하지 않고 수용했는데 본 발표에서는 그 배경에 있는 슈젠샤의 존재를 지적한다.

### 3. 구마노 신앙과 슈젠샤

슈젠도는 산악 수행을 기초로, 불교, 도교, 음양도이 습합(習合)하여 형성된 종교이다. 미야케 히토시(宮家準)는 슈젠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슈젠도는 영산에서 수행하여 영험을 얻고 재난의 예방과 제거에 효험을 나타내는 민간 종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다. 이 종교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산악신앙에 샤머니즘, 도교, 불교, 신도, 음양도가 절충된 민족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슈젠샤는 산악 수행에 의해 초자연적인 능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지기도(加持祈禱)를 실시했다. 가지기도(加持祈禱) 중에는 출산 시의 악령 퇴치와 순산을 위한 기원도 포함된다. 출산에는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므로, 여성 특유의 피의 더러움을 만져야 한다. 따라서 출산할 때에는 일상 공간에서 떨어진 산실에서 분만 및 산후 처치를 했다. 슈젠샤는 출산 시 가지기도(加持祈禱)를 하고, 남성이면서도 여성의 출산에 종사한 점에서 축예(触穢병·죽음 따위의 부정한 것을 접촉함)를 기피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오자사히요로쿠(小笹秘要錄)』에서, 슈젠샤는 포의(태반) 처리에 대해 통달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의(태반)는 모체에서 형성되는 어머니와 태아를 연결하는 기관이다. 출산은 태아가 만출(娩出)된 후 후산(後産, 포의의 반출)이 되면서 완료되지만, 포의(태반)가 체내에 머물면, 산모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포의(태반)처리는 출산을 무사히 마치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 슈젠샤가 출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순산 기원을 위해 가지기도(加持祈禱)를 행한 것과 포의(태반)처리에 능숙했다는 사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슈젠샤는 수행장인 산중을 어머니의 태내로 보고 수행에 임했다. 슈젠샤는 산을 태내로 보면서 정신적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수행을 쌓고 있던 셈이다. 또한 슈젠샤의 의복은 포의를 상징하는 「반가이(斑蓋)」, 모체와 연결되는 배꼽의 끈을 뜻하는 「하시리나와(走繩)」 등 임신·출산이 연상되는 명칭과 모양을 가진 장비를 사용한 것도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 출산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수행장인 산과 옷차림을 출산에 비유하는 슈젠샤는, 여성 특유의 부정함을 기피하지 않고 수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슈젠샤들이 수행의 성지로 삼은 땅은 구마노이다. 구마노가 산악 슈젠샤들의 수행의 장소였던 것은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810~824)의 “마음속으로 범화경을 독송한 사람의 혀가 비바람을 맞아 백골이 된 머리뼈 속에서도 썩지 않았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마노는 태평양, 하천, 산악으로 둘러싸인 자연이 풍부한 지역이다. 산에서 수행(抖擻)하고 자연과의 동화를 목표로 하는 슈겐샤에게 구마노는 완벽한 수행장이었던 것이다. 본디 기피되던 부정함을 수용한 슈겐샤라는 종교인의 성지였다는 사실을 통해 구마노가 특유의 피의 부정함을 지닌 여성을 받아들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 4. 산악 슈겐샤의 성지에서 말하는 지옥

나아가 슈겐샤들의 성지인 구마노에서 창도(唱導)한 지옥은 여성 특유의 피의 부정함을 연상시키는 「혈지 지옥(血池地獄)」이다. 구마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구마노 비구니가 그림 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구마노간신짓카이만다라(熊野觀心十界曼荼羅)』에는 여성만 떨어진다는 「불산 지옥(不產地獄)」과 「혈지 지옥(血池地獄)」이 그려져 있다. 불산 지옥은 출산을 하지 않은, 혹은 하지 못한 여성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출산의 유무를 조건으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설파되었다. 그러나 출산한 여성이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출산했더라도 여성은 월경이나 출산 시 피를 흘리므로 「혈지 지옥」에 떨어진다고 여겨졌다. 「여성」이라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 사후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구마노 신앙이 주목한 것이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출산」이었다.

또한 「불산 지옥」과 「혈지 지옥」을 설파하는 성지는 구마노 이외에도 있었다. 바로 다테야마(立山)이다. 다테야마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된 종교화인 『다테야마만다라(立山曼荼羅)』에는 『구마노간신짓카이만다라(熊野觀心十界曼荼羅)』와 공통적으로 여성이 떨어지는 지옥이 그려져 있다. 후쿠에 미쓰루(福江充)에 의하면, 『다테야마만다라(立山曼荼羅)』에 그려진 「혈지 지옥」은 『구마노간신짓카이만다라(熊野觀心十界曼荼羅)』의 도상(圖像)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구마노와 다테야마가 여성이 떨어지는 그림을 통해 여성의 구제를 설파했다는 것에서, 산림 수행(抖擻)을 통해 서로의 성지를 왕래하던 슈겐샤의 모습이 연상된다. 여성이 떨어지는 지옥과 구제라는 구마노신앙의 교리가 슈겐샤에 의해 다테야마로 전파되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고(推考)할 수 있다.

#### 5. 정리

월경이나 출산 시의 출혈로 인한 여성 특유의 부정함은 여러 종교에서 기피되어 왔다. 그러나 슈겐샤는 그 기피되던 부정함을 만지는 역할을 담당했다. 출산이나 생리 등 여성 특유 혈액의 부정함을 기피하지 않은 슈겐샤들의 수행장이었던 것과 구마노라는 슈겐도(修驗道)의 성지에서 여인 구제를 위해 출산을 둘러싼 이야기가 창도된 것은 무관하지 않다. 또한 구마노와 다테야마라는 산악 신앙의 성지에서, 여성 특유의 피의 부정함 때문에 떨어지는 지옥이 설파된 것도, 슈겐샤가 말았던 여성 특유의 피의 부정함과 관련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번역책임자: 양효진)